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 ‘장성호 수변길’ 관광 명소 떠올라

‘장성호 수변길’이 장성군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장성호 수변길은 장성호 선착장과 북이면 수성리를 잇는 트레킹길이다.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을 정도로 경관이 뛰어나 장성호의 명물로 자리를 잡았다.

장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길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부터 장성호 수변에 길이 7.5km의 트레킹길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6.7km를 조성했으며, 나머지 구간은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장성호 수변길의 가장 큰 특징은 산길과 호반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조성돼 숲과 호수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빠르지 않은 걸음으로도 2시간40분 이내 전 코스를 밟을 수 있을 정도로 험하지 않기에 동호회원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걸어도 제격이다.

장성호 수변길의 백미는 뒤편 뒀니 해도 호숫가를 따라 설치된 1.23km 길이의 나무데크길이다.

호숫가 가파른 절벽을 따라 세운 나무데크 다리는 그 자체로 한 폭 그림처럼 아름다울뿐더러 그 위에

### 숲·호수 정취 동시 감상하며 트레킹 호숫가 1.23km 나무데크길 ‘백미’



서면 탁 트인 장성호의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다리 한쪽에 선 숲의 나뭇잎들끼리 스치는 소리를, 다른 한쪽에선 호수의 물이 절벽을 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박종현 시인은 한 언론사에 게재한 글에서 장성호 수변길을 소개하며 나무데크 다리가 호수와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 데 대해

“탐방객들의 탄성을 지르게 하기에 충분했다”라면서 감탄한 바 있다.

호수를 끼고 한참 더 걸으면 호젓한 기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숲길이 반겨준다. 굳이 트레킹 마니아들이 아니더라도 소나무와 굴참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 사이로 때론 직선으로, 때론 지그재그로 펼쳐진 산속 오솔길을 자박자박 걸으며 한

가한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돼 지루할 새가 없다. 또 가파르지 않아 위험하지 않고 관절에도 무리가 없다. 운이 좋으면 굴참나무 도토리를 먹고사는 다람쥐를 비롯한 산짐승도 만날 수 있다.

장성군은 현재 장성호의 아름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장성호위를 지나는 ‘출렁다리’를 짓고 있다. 장성군은 156m 길이의 이 다리를 완공하면 나무데크길과 함께 장성호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호 수변길의 특징은 꾸미지 않아 더욱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있다”라면서 “장성호 수변길처럼 멋진 트레킹길은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 군수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벌써부터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 온 사람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면서 “힐링 여행지로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추천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 신안군,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실시

자원봉사활동성취 기여·자질 향상·질적 발전 도모

신안군은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지난 21일 군청 다목적강당에서 자원봉사활동실적 30시간 이상자·인원·신규회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강희희 전문강사를 초청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긍정 마인드로 행복한 소통과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자원봉사활동성취 기여 및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질을 향

상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자원봉사자 김모씨는 교육을 통하여 나를 돌이킴으로써 힐링이 되었으며, 대상자와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기쁘다며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또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안=박응식 기자



## 농특산물 판촉 다양화로 농가소득증대

보성군 올해 상반기 농특산물 8억2천9백만원 판매성과

보성군은 지역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대외인지도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올해 상반기만 차비탐회 참가, 자매·우호도시 농특산물 판매, 대도시 직거래장터 및 상설판매장과 보성물 등 소평물 운영으로 총 8억2천9백만원의 판매성과를 거뒀다.

대구티엑스포 등 차관련 각종박람회 8회, 48개 업체 참가로 2억6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울산광역시 남구 등 6개 자매·우호도시에 농특산물 8천4백만 원 판매, 강남구청 실맛이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16회, 55개 업체 참여, 2억3천5백만 원 판매, 가락물 팔도 농특산물 및 용산역 보성농차 홍보 판매관 등 대도시 상설판매장 운영으로 1억5천3백만 원의 실적을 거뒀다.

또한, 농특산물 소평물 ‘보성물’과 우체국 전자상거래로 1억4천5백만 원의 성과를 냈으며, 군 공직자의 ‘보성쌀 팔아주기 운동’으로 2천5백만 원의 판매실적을 냈다.

아울러 보성군의 대표상품인 녹차, 참다래, 꼬막 등 8개 품목을 미

국 등 8개국에 366만 10억6천만 원의 수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군은 젊은층을 겨냥한 효과적인 홍보와 판매를 위해 인터넷소평물 ‘보성물’을 지난 5월 오픈하여 계절 농산물의 특판행사와 기획판매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출항량 등 지속적인 단골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접근성과 집중도가 뛰어난 영화관 스크린 영상광고를 여름방학, 추석 연휴기간 등 극장성수기의 단기간 집중홍보를 통해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비비’와 ‘보성물’ 등 전국42개 극장, 176개 스크린에 총 8만여회 영상광고를 실시하여 지역 특산물 홍보와 인지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용무 군수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개발과 모바일 소평물 구축, SNS 활용한 판촉과 홍보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 함평군, 콩 다수확 재배기술 교육 실시

농가 애로점 청취하고 품질향상·수확량 증대 도모

함평군이 25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콩 재배 농업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콩 다수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벼 대체작목으로 콩 120ha를 재배한 농가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품질향상과 수확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책임연구원 박금룡 박사를 초빙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재배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항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논콩 재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발작물로 대표되는 콩의 수량적 감소요인도 적극 해소하는 한편, 고품질 다수확 콩

생산과 임대사업장을 활용 기계화 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올해 포화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 포획 시범 사업을 통해 5ha 규모의 친환경 콩 해충방제 시범도 추진하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 영광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성료



나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영농 현장 애로사항, 기상재해 대책, 농기계 안전교육 등 영농 전반에 걸친 핵심 내용을 강의하였으며 농민들의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농업인과 애로사항 및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영광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구례군, 규제개혁 역량강화 공무원 교육

군 산하 공무원 160여 명이 참석...맞춤형 교육 실시

구례군은 지난 25일 구례문화회관에서 군 산하 공무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와 함께하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교육 실시했다.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지원으로 추진한 이번 교육은 고주석 사무관을 초빙하여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안실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의무 부과 등으로 인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과 법제처 협업과제 등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맞춤형 자치법규 규제 정비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초빙된 고주석 사무관은 “법 대부분이 규제이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을 통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가는 것이 규제개혁이다”며, 규제개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곁엔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

